“군불교, 청년 포교 최전선서 선봉장”

11월 29일, 교구장 법원스님 취임
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봉행
“군포교 새 역사 만들어 가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1월 29일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한 법원 스님이 군종특별교구를 상징하는 깃발을 받아들고 힘차게 흔들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신임 교구장 법원 스님이 청년 포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 날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포교 원력을 다졌다.

법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조국 수호의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전 장병과 군무원, 군승 법사들의 노고를 수희 찬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돼 오직 전법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원 스님은 이날 청년 포교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는 전법”이라며 “그중에서도 대학생, 청년층의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청년계층 포교의 중심은 군불교”라면서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전후방 각지 군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이 땅에 불법이 전래된 이래 불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장선 일들을 열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은 군불교로 이어져 끊임없이 정진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불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라는 현실의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층에 대한 포교와 전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중흥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면서 “7대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모든 군승법사들이 포교와 전법 원력을 세우고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 발전과 불교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이상철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주호영 정각회장도 축사를 통해 60만 장병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 전법의 한 길에서 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법어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불교의 빛나는 전통은 끊임없이 정진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군승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유공자 표창 수여를 통해 전후방 각지에서 군불교 발전에 헌신한 군승과 불자들을 격려했다. 육군 제17사단 호국연주사 주지 원경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혜운 · 자원 스님이 ‘포교원장상’을, 정행 · 혜징 · 진오 · 금조 · 수종 스님이 ‘군종특별교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송정일 제1군수지원사령부 무량사 금강회 총무와 황용주 제36보병사단 법웅사 금강회장이 ‘군종교구장 공로상’을 받았다.

법회 동참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부여된 군 포교의 사명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작고 경미한 것이라 해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게 하며 그 마음이 바로 호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에 이어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아차리게 하며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 마침내 군 포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임을 몸으로 체득하게 해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화계사 거점 전법 활동 시작

11월 28일, 화계사서 현판식
가수 진미령 등 30여 명 동참
우봉 스님 “공덕 짓는 근본도량”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11월 28일 서울 화계사에서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갖고 불교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을 시작했다.

불자 연예인들이 서울 화계사를 거점으로 불교중흥을 위한 전법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은 11월 28일 서울 화계사에서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갖고 거점 활동지의 탄생을 알렸다.

현판식에는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주지이자 단장 우봉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포교국장 선보 스님 등 스님들과 연예인전법단 대표 배우 임혁 씨, 가수분과위원장 가수 김국환 씨, 가수 진미령 씨, 국악소녀 이소원 양, 국민가수 임지민 양 등 연예인 30여 명이 동참했다.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오늘 현판식을 기점으로 화계사는 여러분들의 집이 될 것이고, 활동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계사가 여러분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근본도량이 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은 “오늘 현판식을 가진 이 순간부터, 연예인전법단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모두 정화하는 감로법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의 본격적인 포교 첫발을 응원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국장 소임을 보던 2010년 당시 여러 전법단이 만들어지면서 연예계도 전법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었다”면서 “오늘 연예인전법단 현판식을 계기로 전법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전법단은 가수와 연기, 연극, 방송 등 6개 분과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판식을 시작으로 송년법회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예인 대표 임혁 배우는 “오늘부터 연예인들의 홍법 포교 전초기지는 화계사”라면서 “스님들 잘 모시고 포교원과 협의해 백각이불여일행(百覺而不如一行)의 마음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연예인전법단원들은 현판식에 이어 화계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타종체험과 저녁예불, 108배와 자애명상, 차담 등을 경험하며 신심을 견고히 했다.

임은호 기자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동안거 ‘백일법문’

불교인재원, 12월 7일~ 2023년 2월 22일까지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근본으로 바른 신행운동을 펼쳐 온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성철 스님 열반 39주기를 기념하는 ‘백일법문’을 개강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하는 이번 강좌는 동안거를 맞아 12월 7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백일법문’은 조계종 출범 후 최초로 해인총림이 설립되면서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에 100일 가까이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한 것을 제자 원택 스님이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방대한 팔만대장경으로 공부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초기 경전인 니까야 아함부 경전에서부터 대승 교학인 중관, 유식과 중국불교인 천태, 화엄, 그리고 선종 사상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정립하고 그 중도를 가장 빠르게 깨치는 길이 화두 참선이란 것을 체계적으로 설법했다.

현대 선지식 고우 스님은 생전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불교입문서로서 세계 최고”라면서 반복해서 읽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정견을 세우면 팔만대장경을 회통할 수 있고 화두 참선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좌계의 원로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정진 중인 현기 스님도 “백일법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일찍 이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탄식하며 후학들에게 ‘백일법문’ 읽기를 간곡히 권하고 있다.

이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에서는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가 되는 이번 동안거를 맞아, 12월 7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조계사 앞 열린선원(두산위브 836호)에서 성철 스님을 직접 시봉하며 ‘백일법문’을 책으로 만든 원택 스님을 청해 개강 특강을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한다. 동안거 12주 동안 진행되는 ‘백일법문’ 공부는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성균관대 초빙교수)과 박희승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이 안내한다.

아울러 실시간 ZOOM앱과 네이버 카페(cafe.naver.com/jungdo2018)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010-4050-5969

임은호 기자

여성개발원, 11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창립 23주년 기념식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여성불자들의 네트워크인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가 11차를 맞았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기향)은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 23주년 기념식과 제11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개발원의 역량이 발휘되고 여성불자 108인을 비롯한 회원들의 우수성과 주인의식,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결집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붓다가 밝히신 지혜의 빛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향운사 주지 지상 스님은 ‘바라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며 “여성불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소중한 원력과 공덕이 모아져 오늘의 소중한 인연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제11차 여성불자108인에는 강경자 IF페이스디자인 원장과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를 비롯해 경제 · 교계단체 · 교육연구 · 문화예술 · 법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108인이 선정됐다. 제11차 여성불자108인회는 △수행정진 △생명존중 △평등세상 △전법포교에 매진할 것을 선서했다.

남동현 여성불자108인 회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108인회는 부처님과 만나고 신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친목을 확대하는 자리로,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개발원은 기념식에서 지혜장학회 제8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지혜장학금 각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도선사, 도봉구에 ‘자비의 쌀 5톤’

11월 28일 전달…어린이집연합회에도 1톤



삼각산 도선사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하는 보살행을 실천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28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도봉구민을 위한 자비나눔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지역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전달식에는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과 김학규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도선사는 행사에서 정환중 부구청장에게 자비나눔 쌀 5톤(10kg 500포)을 전달했다. 도봉구청은 전달받은 쌀을 도봉동과 방학동 등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도선사는 같은 날 도봉구 국 · 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소속 69곳의 어린이집 원아를 위한 자비의 쌀 1톤(10kg 100포)을 지정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정환중 부구청장은 “도봉구는 동마다 어려운 가구들이 200세대 이상 될 정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도선사 사부대중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자비나눔의 쌀을 골고루 전달하겠다. 주지스님과 도선사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윤호섭 기자

로터스미용센터, 제12기 수료…12명 졸업

11월 20일, 7개월 교육과정 이수
공신력 높은 수료증 취업에 유리



국제개발협력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산하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가 11월 20일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12명(여학생 11명, 남학생 1명)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총 15명이 입학했으나, 성적과 출석률 등을 반영해 최종 수료생 12명이 결정됐다.

수료생들은 로터스희망미용센터의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교육 기간에는 교육 혜택을 캄보디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 미용봉사도 펼쳤다. 매주 토요일 고아원 2곳,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해 445명에게 미용봉사를 진행했다.

졸업생들은 향후 캄보디아 시엠립 등 각 지역 뷰티 관련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캄보디아 시엠립 주정부 노동청의 인증을 받아 발급한 공신력 높은 수료증은 취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로터스월드는 “‘직업교육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로터스희망미용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춰 12명의 수료생 역시 조만간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미용실과 네일숍 등에 무난하게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료생들은 성공적인 취업으로 일반 청년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한국전통사찰순례, 2023년도 3차 회향

부부 · 도반 등 60명 회향 증서
33개 사찰 방문 후 인장 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11월 27일 ‘2023년도 3차 한국전통사찰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3차 순례에서는 5쌍의 부부팀과 불자회 도반 등 총 60명이 회향 증서를 받았다.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전통사찰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해당 사찰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한국전통사찰순례 책자에 수록된 33곳 사찰은 고운사, 구룡사, 금산사, 기림사, 낙산사, 내소사, 대흥사, 도선사, 동화사, 마곡사, 백양사, 범어사, 법주사, 법흥사, 보리암, 보문사, 봉은사, 불국사, 선운사, 송광사, 수덕사, 신륵사, 신흥사, 쌍계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조계사, 직지사, 통도사, 해인사, 향일암, 화엄사이다.

이날 회향 증서를 받은 박종실(교사불자회 경인지역 사무국장) 씨는 “33관음 성지를 추천 받아 순례를 시작했고, 오늘 동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회향하게 됐다”며 “향후 좋은 기운을 이어 탑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아 시작된 한국전통사찰순례에서는 올해 15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07명이 회향 증서를 받았다. 02)2031-2000

김내영 기자

불교진흥원, 군종교구에 7000만원 전달

“청년 불교 활성화 도움되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8일 올해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 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

이한구 이사장은 “군승 등 군불교 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진취적인 사고로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청년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현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불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청년 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흥원은 설립 이후 군불교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